

《인권 존중 도시 시나가와 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절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수많은 시련과 희생에 기반한
일본국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은
이러한 인류 보편의 원리를 나타내며
인권의 존중이
국제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혔다

오늘 일본 사회의 실정은
아직도 차별 의식과 편견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
부락 차별을 비롯하여
장애인, 여성, 선주 민족,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얼마나 많은 인간이 괴로워하고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 낸 차별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의해
반드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평화롭고 관대한
인간 존중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나가와구는
《인권 존중 도시 시나가와》를 선언하며
차별 실태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인권 존중 사상의 보급 및 계발과 교육을 추진할 것을
여기에 맹세한다

1993년 4월 28일

시나가와구

『人権尊重都市品川宣言』

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
自由であり、平等である
いかなる国や個人も、いかなる理由であれ
絶対にこれを侵すことはできない

幾多の試練と犠牲のもとに
日本国憲法と世界人権宣言は
この人類普遍の原理をあらわし
人権の尊重が
国際社会の責務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今日、我が国社会の実情は
いまだに差別意識と偏見が
人々の暮らしの中に深く根づき
部落差別をはじめ
障害者、女性、先住民族、外国人への差別など
どれほど多くの人間が苦しんでいることか

人間がつくりあげた差別は
人間の理性と良心によって
必ずや解消できることを
我々は確信する

平和で心ゆたかな
人間尊重の社会の実現をめざす品川区は
『人権尊重都市品川』を宣言し
差別の実態の解消に努め
人権尊重思想の普及啓発と教育を推進することを
ここに誓う

1993(平成5)年4月28日

品 川 区



品川区のホームページでもご覧になれます